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위 기자회견문

〈윤석열, 윤대진 무혐의 처분 관련〉

검찰이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후보와 윤대진 검사는 불기소하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 5년 우리 정부가 정말 힘겹게 검찰 개혁에 진력했는데, 아직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원칙'은 깨질 줄 모릅니다. 김학의든 윤석열이든 윤대진이든 검사 식구이기만 하면 있던 증거도 없어지고, 전부 무혐의를 받습니다.

얼굴이 버젓이 찍힌 영상이 공개되어도, '내가 했다'고 당당하게 범행을 자인하고 다녀도,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달라고 해도, 다 안 되는 일이고, 결론은 무혐의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검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고발 사주, 선거 개입, 판사 사찰, 모해위증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생각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대로라면 검찰의 제 식구는 무혐의, 나머지 관련자들은 기소가 될 것입니다. 가히 '검찰의 제 식구 무혐의 철칙'이라 부를 만합니다. 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나 장모 최은순 씨가 기를 쓰고 검찰 가족이 되고자 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야당은 시종일관 '검찰 개혁'이라면 덮어놓고 검찰만 대변해왔는데, 보십시오. 수사/기소권을 일부 조정하고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도입해도 도무지 바뀌질 않는데, 검찰을 누가 견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나누는 것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검찰을 진정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들 속셈인 게 아닙니까?

검찰의 눈치 보기도 기가 막히는데, 국민의힘의 검찰 왕국 만들기는 진정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까, 한줌 검사들을 위한 정당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검찰에도 경고합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 학력/경력 위조 사기 사건 수사 똑바로 하십시오. 검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를 자행한다면, 저희는 다시 검찰 개혁에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검사를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때까지 저희는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